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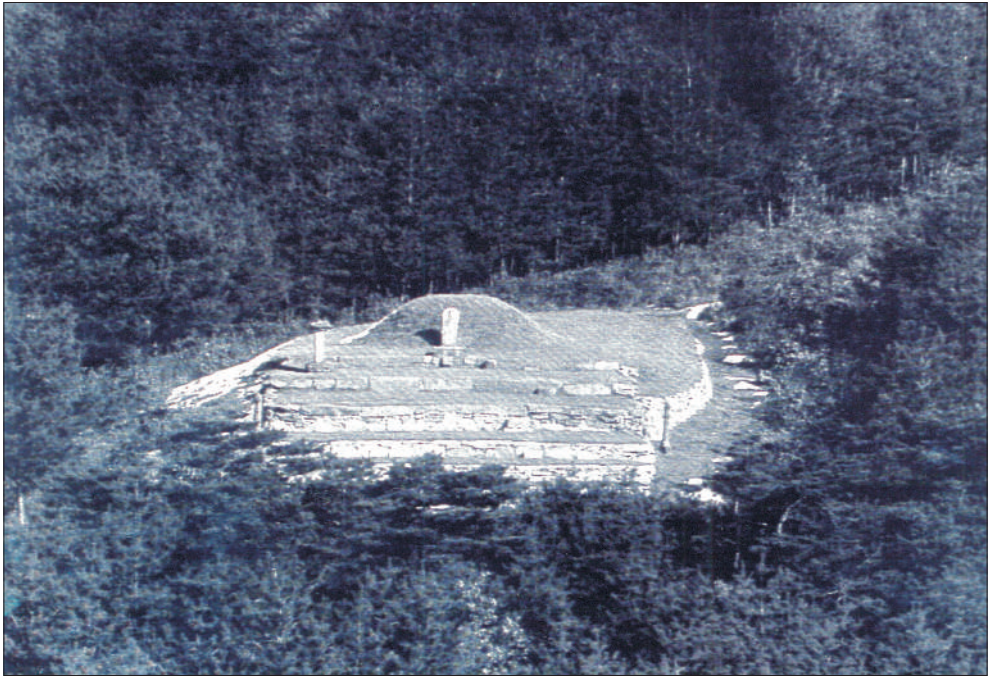
先世享祀便覽

2022年版



文化柳氏大宗會

대전시 중구 계백로1566번길 24



始祖 大丞公(휘 車達) 墓所
1943年 당시의 柳陵, 黃海道 九月山



燒失되기 전의 始祖 大丞公齋室
敬思樓, 黃海道 九月山 墓下



柳陵 全景(黃海道 九月山)



柳陵앞의 保存遺蹟標識碑



大東祠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신촌동길47-8(동호동587)



東雞祠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462(학봉리 789)



五代壇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양지말1길 71(계류리)



慕省祠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양지말1길 71(계류리)



文化柳氏大宗會旗



文化柳氏大宗會館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566번길24(유천동)



文化柳氏大宗會館 (現在)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566번길24(유천동)



文化柳氏由來碑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79(침산동 산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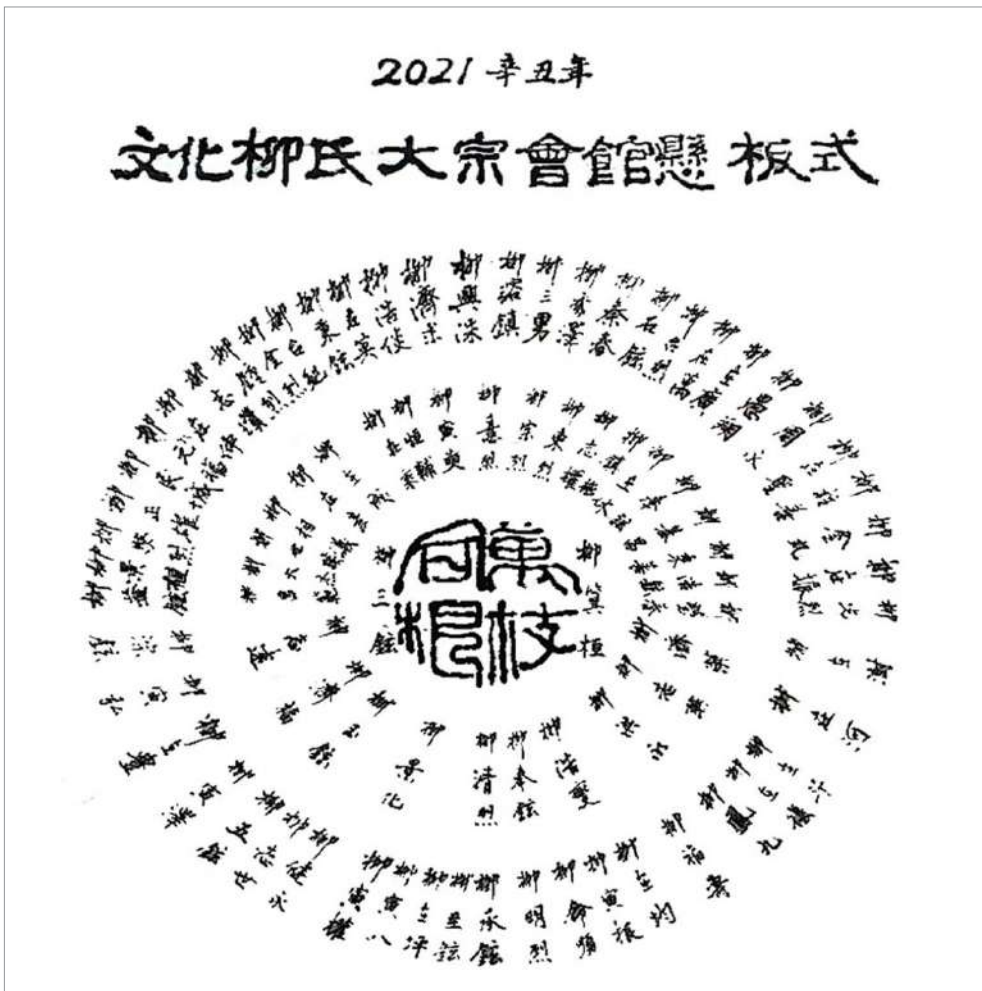
(2020. 5. 14)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양지말길 71(계류리)





慕省祠 享祀 後 記念攝影
(2021. 10. 20)





文化柳氏大宗會館 懸板式 記念撮影
(2021. 11. 3)



文化柳氏大宗會 顧問,副會長,理事,監事 任員會議
(2022. 8. 31)



뿌리公園 孝 文化祝祭
(2022. 10. 8)



文化柳氏大宗會 秋季總會
(2022. 9. 15)



文化柳氏大宗會 任員團 懇談會
(2022. 11. 30)

大宗會 任員團



顧問 興洙



顧問 瑤鎮



顧問 來鉉



顧問 浩倓



顧問 濟求



名譽會長 箕桓



會長 三男



副會長 在殷



副會長 在英



副會長 秀澤



副會長 秉鉉



副會長 秦春



副會長 台紀



副會長 石鉉



副會長 金烈



副會長 在聖

大宗會 任員團



副會長 台烈



副會長 寅滿



副會長 濟求



副會長 奉鉉



副會長 在萬



副會長 晶善



副會長 志瓚



副會長 在廣



副會長 在仲



副會長 元福



副會長 愚翔



副會長 武烈



副會長 周永



副會長 民城



副會長 健永



副會長 正雄

大宗會 任員團



副會長 柱善



副會長 樊烈



副會長 金丸



副會長 益鉉



副會長 志誠



副會長 濟奉



弘報理事 在均



弘報理事 朱桓



監事 在坪



監事 在休



事務總長 承鉉

發 刊 辭

文化柳氏大宗會長 柳 三 男



享祀는 곧 祭享이니 부모 및 선조에 대하여 자기 생전에 미치지 못한 봉양을 추념하고 다하지 못한 효도를 계승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곧 天性으로서 사나운 짐승인 승냥이도, 날아다니는 새 매도, 물속에서 사는 수달도 저를 낚아 길러 준 어미에 먹이를 물어다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 故事에 전하는데, 하물며 萬物의 靈長이라 일컫는 인간으로 서야!

이상과 같은 행위를 후손으로서 追遠報本의 당연한 도리로 알고 행해왔는데 今世紀 들어 물질만능의 급격한 변천으로 人心 또한 야박해져 우리 전래의 美風良俗이 실로 抹殺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世態를 원망만 할 수도, 방관만 할 수도 없어 고심하던 차, 수년 전부터 우리 大宗會 차원에서 崇祖睦宗의 신념을 진작, 고취시키고자 각파 大·小宗中으로부터 先世의 享祀 일자와 장소 즉, 묘소 혹은 재실 등을 파악하여 世代·宗支順으로 편집, 先世享祀便覽이란 제목으로 宗報 『儒州春秋』에 연재, 배포하여 왔습니다.

연재한 이유는 배포한 宗報에 혹 誤記 및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申告를 받아 보완하고자 함이고, 한편 大宗會 총회 및 이사회 등을 통하여 계속 알리고 또한 독촉하였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로서 작년부터 각파 宗會長 책임 하에 더욱 독촉을 가하여 일자 및 장소의 번지 등을 자세히 파악하여 수정, 보완 끝에 금번 소책자를 편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책자를 자세히 보시고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 사항을 신고해 주시면 條例에 의하여 수정 증보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발간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目 次

發刊辭	16
上世篇	19
先世篇	34
1. 侍郎公派	35
2. 文肅公派	41
3. 夏亭公派	49
4. 掌令公派	55
5. 崑山君派	59
6. 文平君派	63
7. 中門祗後使公派	68
8. 左相公派	75
9. 檢漢城公派	91
10. 貞肅公派	96
11. 判事公派	104
12. 水使公派	107
13. 府尹公派	109
14. 忠景公派	112
가. 典祀令公宗中	119
나. 判尹公宗中	124
다. 部令公宗中	133
라. 少尹公宗中	138

上 世 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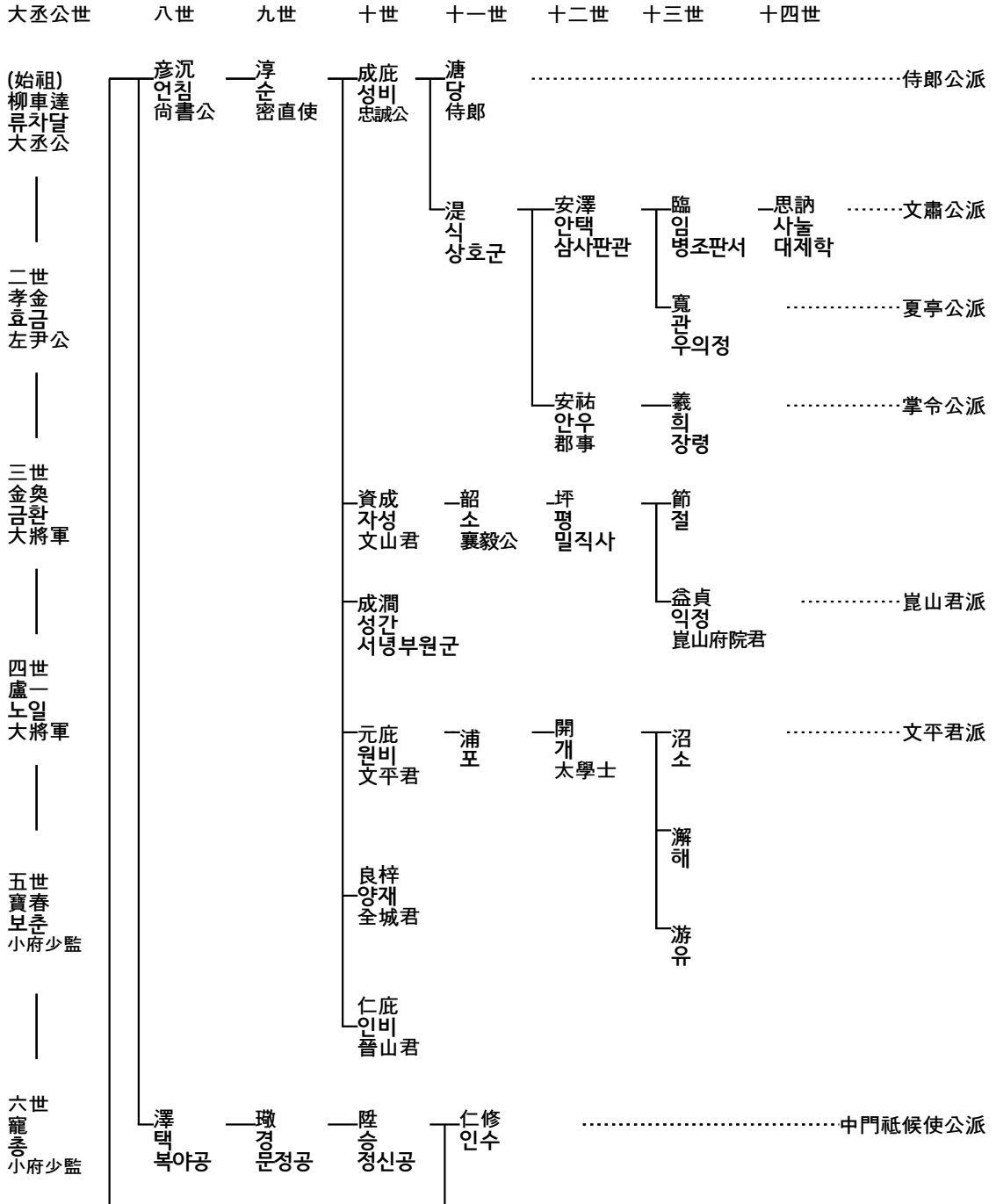
柳陵 앞의 保存遺蹟標識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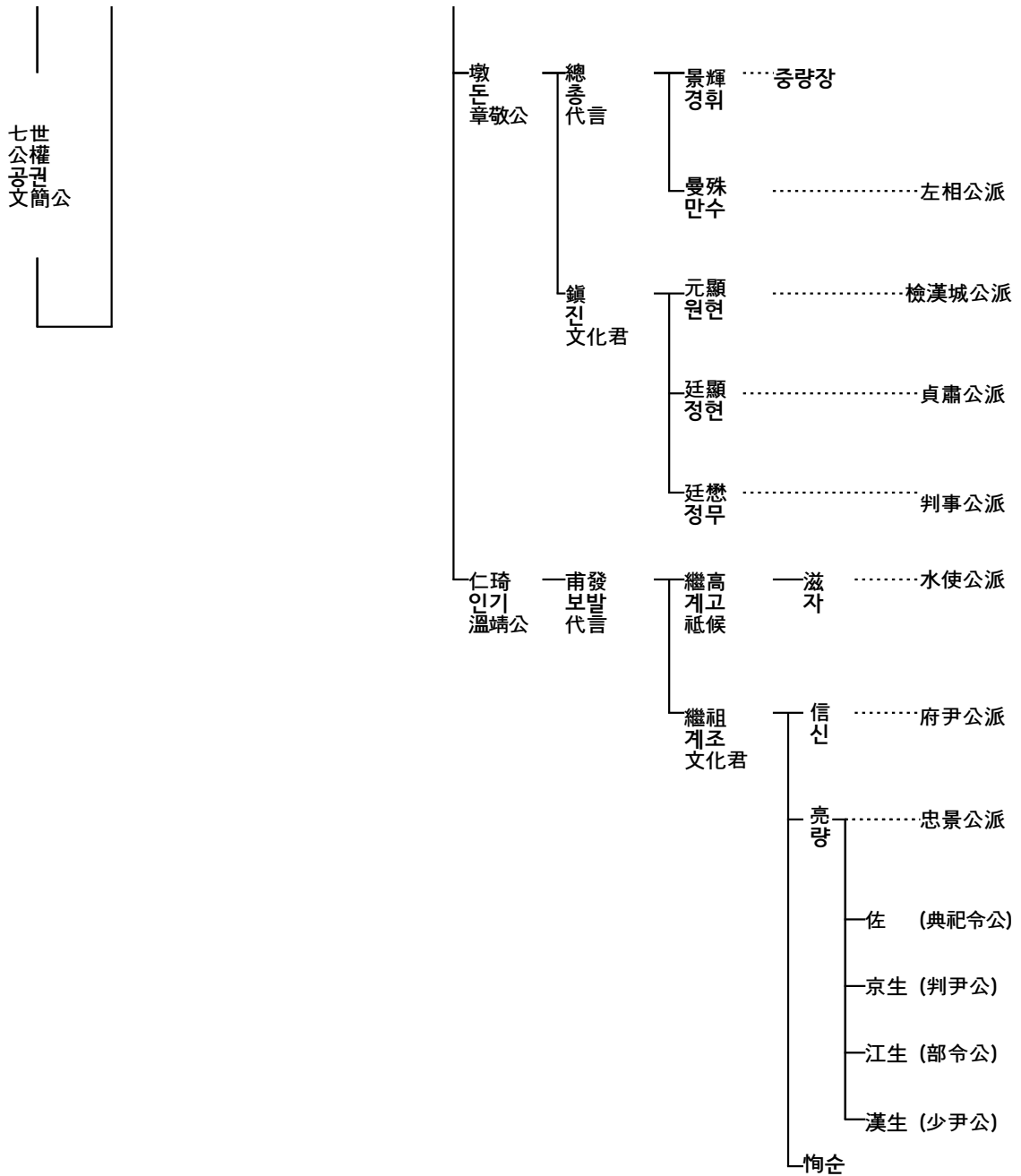
五代壇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산6

文化柳氏分派圖



先世享祀便覽



先世祖史

1. 대승공 류차달(大丞公 柳車達)

류차달 (柳車達), 대승공(大丞公), Ryu Cha-Dal, 생몰년: ?-?, 세: 1, 문화류씨 시조

공은 신라(新羅) 말기에 유주(儒州), 지금 황해도 신천군 문화면 묵방동(黃海道 信川郡 文化面 墨坊洞)에서 태어났는데 가세(家勢)가 심히 부호(富豪)였다.

후삼국(後三國) 시대에 태조 왕 건(太祖 王 建)이 신망을 얻어 천하를 통일하려 후백제(後百濟)의 견훤(甄萱)을 정벌하려 할 즈음 군량이 부족하여 난처한 처지에 있었다. 이 때 공께서 수레를 많이 내어 군량을 보급하여 고려(高麗) 개국에 큰 공을 세웠다. 이에 태조께서 공에게 삼한공신(三韓功臣)의 훈호(勳號)와 대승(大丞)의 관작을 내리었다.

묘소는 문화 구월산 남록 인좌(文化 九月山 南麓 寅坐)에 모셔져 석의(石儀)가 갖추어 있다.

大丞公(諱 車達)이 곧 문화류씨의 시조이며, 그 아들 효금(孝金)은 좌윤(左尹)이다.

조선(朝鮮) 철종(哲宗) 14년(1863)에 신도비(神道碑)를 세웠는데, 대제학 남병철(大提學 南秉哲)이 비문을 짓고, 이조참판 서형순(吏曹參判 徐衡淳)이 비문을 썼다.

1946년에 나주군 본양면 신촌(羅州郡 本良面 莘村), 현 광주시 광산구 동호동(光州市 光山區 東湖洞)에 사우(祠宇)를 창건하여 공의 위패를 봉안하고 그로부터 매년 음2월 15일에 향사를 받들고 있으니 이른바 대동사(大東祠)이다. 그리고 1960년에 공주군 반포면 학봉리 (公州郡 反浦面

鶴峰里) 동학사(東鶴寺) 경내에 있는 동계사(東雞祠)에 추배(追配)하여 매년 음 3월 15일과 10월 24일에 향사를 받들고 있다.

※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2. 문간공 류공권(文簡公 柳公權)

류공권 (柳公權), 문간공(文簡公), Ryu Gong-Gwon, 생몰년: 1132-1196, 세: 7,

자는 정평(正平)

공은 대승 류차달(大丞 柳車達)의 6대손이요, 검교소부소감 총(寵)의 아들로 인종(仁宗) 10년(1132)생이다.

젊어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초예(草隸)에 능하더니 의종(毅宗) 9년(1155)에 성균시에, 14년(1160)에 문과에 급제하여 이듬해 청주목서기(淸州牧書記)로 나갔다가 3년 후 익양부록사(翼陽府錄事)로 옮겼는데 그 진퇴와 거동이 항상 법도가 있음으로 왕이 공의 충직한 자질이 대신(大臣)의 기량이 있음을 알고, 군신(君臣)간의 예우가 실로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명종(明宗) 초에 직사관(直史館)에 있다가 병부랑중(兵部郎中)에 옮기고 얼마 후 예빈경(禮賓卿)으로 금나라에 가서 만수절(萬壽節)을 하례하니 금(金)나라 사람들이 그 예를 안다고 칭송하였다.

19년(1189) 5월, 우승선으로 감시(監試)를 관장하여 시부(詩賦)로써 정수강(鄭守剛) 등 19인과 십운시(十韻詩)로써 이규보(李奎報) 등 62인의 명사들을 선발하니 학자들이 아름다운 일이라 하였다. 이듬해 국자감대사성에 올라 태자찬선대부(太子贊善大夫)를 겸하고, 21년(1191) 4월에 한림학사로 동지공거(同知貢舉)가 되어 손희작(孫希綽) 등 29인을 선발하였다.

우부승지(右副承旨)에 전직되었다가 우산기상시 지주사(右散騎常侍 知奏事)에 승진하여 계사(啓事)에 칭지(稱旨)함이 많았고, 또한 비익(裨益)됨

이 허다하였다.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에 올라 25년 (1195)에 질병으로 퇴직을 청하니 왕이 그 문학을 사랑하여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이르기를 『조정에 구덕(舊德)이 있음은 사직(社稷)의 복이라, 경(卿)은 어찌 갑자기 물러나려 하는가?』 하시었다. 공이 세 차례 글을 올리니 드디어 왕이 허락하셨다.

집에서 1년을 병석에 지내는 동안 친속들이 탕약(湯藥)을 올리면, 공이 이르되 『죽고 사는 것은 천명(天命)에 있는 것이다』 하고 끝내 마시지 않았다. 병이 위독함에 이르러 왕이 특별히 정당문학 참지정사(政堂文學叅知政事)를 제수하였는데, 얼마 후 돌아가시니 향년 65세로 문간공(文簡公)의 시호가 내리었다. 공은 천성이 공평하고 청렴하였으며 관직에 있어 게으르지 않았다.

공께서 임금을 호종(扈從)하고 안화사(安和寺)에 이르러 어제(御製)에 응하여 지은 차운시(次韻詩)와 사직표(辭職表)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및 동문선(東文選)에 전하고 있으며, 친필이 해동필원(海東筆苑) 및 용인 광고산 서봉사(龍仁 光教山 瑞鳳寺)의 현오국사비(玄悟國師碑)에 전하고 있다.

공의 묘지가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에 실려 있는데 그 명사(銘辭)에 이르기를,

문장은 족히 도를 관통하고, 사업은 족히 때를 구제했도다.
 벼슬은 재상 지위에 올랐고, 덕의는 원로로 일컬었도다.
 임금은 옛일을 생각하여 후에 포상이 후하였도다.
 공께서 인도를 다했으니 이에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
 일대의 으뜸가는 스승이요, 만인의 선망이 되었도다.
 태산이 이미 무너졌으니 백성들은 어디를 우러러볼까?
 백세의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송백은 푸르고 푸르도다.

이곳은 공의 묘소이니 혹시라도 손상치 말지어다.
※고려사열전. 묘지명. 동국여지승람. 동문선

3. 상서공 류언침(尙書公 柳彦沉)



류언침 (柳彦沉), 상서공(尙書公), Ryu Un-Chim, 생몰년: 1167-1228, 세: 8,甲派祖

일휘 언침(彦琛)

공은 문간공 공권(文簡公 公權)의 아들로 의종(毅宗) 21년(1167)생이다. 신종(神宗) 원년(1198)에 출사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영우군(領右軍)에 이르렀더니 희종(熙宗) 원년(1205)에 외직으로 나가 백성을 다스림에 너

그럽고 어질었으며, 만기 후 내직으로 들어왔다가 7년(1211) 봄에 다시 안렴사(按廉使)로 나갔다.

강종(康宗) 원년(1212) 정월, 통령(統領)에 제수됨과 아울러 요대(腰帶)를 하사 받았다.

고종(高宗) 3년 (1216)에 관북도찰방사(關北道察訪使)로 나가 지방관원의 비위 사실을 추국(推鞠)하여 시비를 가림에 지극히 공평하였다. 8년(1221)에 상장(上將)에 제수되어 국가의 군무(軍務)를 관장하고 이듬해 형부상서(刑部尙書), 판합문사(判閣門事)에 올랐다. 12년(1225)에 은청광록대부 추밀원부사 좌산기상시(銀靑光祿大夫 樞密院副使 左散騎常侍)를 거쳐 14년(1227) 12월 추밀원사 예부상서(樞密院事 禮部尙書)에 승진되고 이어 군공(軍功)으로 감문위섭상장군(監門衛攝上將軍)에 특제되었다. 이에 글을 올려 굳이 사양하였으나 윤허(允許)하지 않으셨다.

15년(1228)에 졸하니 향년 62세였다.

왕이 당시 문장인 평장사 이규보(平章事 李奎報)를 시켜 공의 사직소에 대한 비답(批答)을 내렸는데 그 비답이 동문선(東文選)에 실려 전하고 있다. 그에 이르기를,

『짐(朕)이 보건대 위(魏)나라 황초(黃初 ; 文帝의 年號) 중엽에 유독 조진(曹眞)을 상장군(上將軍)으로 삼았었고, 당(唐)나라 고조(高祖)는 또한 천책부상장군(天策府上將軍)을 두었다가 그 뒤 드디어 폐지하였다. 오직 우리나라에서 항시 상장군을 두었는데 그 뜻을 말하자면 가령 장군이 공(功)이 있으면 가히 대장(大將)으로 올릴 수 있지만, 대장이 공이 있으면 장차 어떻게 더 올리겠는가? 그러므로 이런 관작(官爵)을 설치하여 대장의 큰 공이나 훌륭한 업적에 보답한 것이니, 어찌 누구에게나 그런 관직을 제수(除授)하는 것이겠는가? 경(卿)은 명가(名家)에서 성장하여 착한 교훈에 젖었기에, 몸단속이 법도(法度)가 있어 부친의 유풍(遺風)을 떨어뜨리지 않고 글씨와 글이 문신(文臣)의 솜씨에 내리지 않는다. 그러

나 부유(腐儒)들의 책만 끼고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홀로 비호(飛虎) 같은 장수(將帥)처럼 공 세우기를 희망하여 일찌기 갈관(鶡冠: 武士의 冠)을 쓰고 오랫동안 용장(龍仗)을 모셨으며, 동도(東都)에 범순(犯順: 叛逆)이 있었을 때는 일백기(一百騎)를 거느리고 나가 흉악한 무리를 무찌르고, 북변(北邊)에 오랑캐들이 방자히 침범할 때는 일천인(一千人)을 통솔하고 가서 오랑캐를 소탕하였으니, 그 누차 쌓은 공을 생각하건대 어찌 관작을 높이는 은전(恩典)을 아끼겠는가? 이에 높은 자급(資級)을 주어 특별한 은전(恩典)을 내리는바, 관질(官秩)은 팔좌(八座)의 자급에 견주고 반열(班列)은 구경(九卿)의 위에 있게 한 것이다. 이래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는데 어찌 사양(辭讓) 하는고?』 하였다.

공의 묘소는 개성군 중서면 덕달리 경좌원(開城郡 中西面 德達里 庚坐原)에 모셔 있는데 지난 1916년에 묘비를 세웠다. 묘갈명은 진사 완산 이건방(進士 完山 李建芳)이 짓고, 전이조판서 해평 윤용구(前吏曹判書 海平 尹用求)가 비문을 썼다.

※고려사(高麗史). 동문선(東文選). 묘지(墓誌)

4. 복야공 류택(僕射公 柳澤)

류택 (柳澤), 복야공(僕射公), Ryu Taek, 생몰년: ?-?, 세: 8, 乙派祖

공은 문간공 공권(文簡公 公權)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천품이 강직하고 행실이 단정하여 학문에 전력하였다.

명종(明宗) 때 약관으로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24년(1194) 3월 봉어(奉御)로 재직 중 금(金)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희종(熙宗) 6년(1210) 6월, 비서감(秘書監)으로 동지공거(同知貢舉)가 되어 김홍(金泓) 등 33인을 선발하였다.

고종(高宗) 3년(1216) 3월, 선경전(宣慶殿)에 장경희(藏經會)라는 불교

(佛敎)의식의 집회를 호화롭게 베풀었는데, 당시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있던 공께서 상소로서 그 폐단을 극력 간하였으니 그 소문(疏文)은 대략 다음과 같다.

『비록 지극히 근실한 생각을 스스로 독실히 하여 정사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사오나, 불행히도 이 어려움이 많은 시기를 당하여 이 같은 호화스런 집회를 베푸심은 능히 제어(制御)하지 못한 탓입니다.』하였다.

이때 옆에 있던 간의대부 박현규(諫議大夫 朴玄圭)가 왕에게 아뢰기를 「류모(柳某)의 이른바 능히 제어하지 못한다 함은 필시 진강공(晉康公: 崔忠獻)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말입니다」하고, 한편 서리(胥吏)를 시켜 당시 세도가 절정에 달했던 최충헌에게 고발하였다.

최충헌이 즉시 공을 불러 이 사실을 물으니 공께서 크게 웃으면서 기색이 태연자약하였다. 이에 사람들이 이르기를 『박현규가 전부터 류택과 숙감(宿憾)이 있던 때문에 이 말을 최충헌에게 알려 충동질한 것이다.』하였다.

당시에 최충헌이 국권을 잡고 세도를 부림에 문인(文人) 학사(學士)들이 시부(詩賦)를 지어 그에게 아첨하는 무리가 많았으나 공께서는 홀로 아부하지 않고 오히려 풍자(諷刺)의 상소로서 그를 배척하니, 사람들이 모두 공의 굳굳한 기개(氣概)를 흠양하여 마지 않았다.

추밀원우승선(樞密院右承宣), 진현관대제학(進賢大提學)을 거쳐 9년(1222) 12월에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에 승진하고, 이듬해 6월 지공거(知貢舉)가 되어 조균정(曹均正) 등 29인을 선발, 등용시키었다.

1남을 두어 경(敬)이니 바로 고종조에 최씨(崔氏)의 무단정치를 종식시켜 위사일등공신(衛社一等功臣)에 책록되고 관직이 첨의중찬(僉議中贊)에 오른 문정공(文正公)이다.

공의 묘소는 장단군 진서면 전재리 종개천(長湍郡 津西面 田齋里 鍾開川)에 계시는데 조선 고종 6년(1869)에 묘비를 개수하였다. 영의정 김병

학(領議政 金炳學)이 비문을 짓고, 병조판서 신 헌(兵曹判書 申 櫛)이 글씨를 썼다.

※ 고려사(高麗史).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5. 류순 (柳淳)



류순 (柳淳), Ryu, Soon, 생몰년: ?-?, 세: 9,

휘(諱) 언침(彦沉)의 단자(單子)로 밀직사(密直司) 겸(兼) 한림학사(翰林學士), 감문위(監門衛) 상장군(上將軍)을 지내시었다.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 추밀원사(樞密院事)를 지내셨다.

슬하(膝下)에 일곱 아들을 두셨으니 장자(長子)는 한운(旱雲)은 무후(無後)하였고, 차자(次子) 성비(成庇)이고, 삼자(三子)는 자성(資成)은 찬성사(贊成事)로 문산군(文山君)이시고 넷째아들은 성간(成澗)은 서령부원군(瑞寧府院君)이시

고, 오자(五子) 원비(元庇)는 처음 선산부원군(善山府院君)으로 봉(封)했으며 뒤에 문평군(文平君)으로 다시 봉(封)하셨고, 육자(六子)는 양재(良梓)는 전성군(全城君)이시고, 칠자(七子) 인비(仁庇)는 판시사(判寺事)로 진산군(晉山君)에 봉(封)해 지셨다.

아들이 모두 봉군인 일가6봉군(一家六封君)으로 삼한갑족(三韓甲族) 명문가로, 삼산이주(三山二州)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

배위(配位)는 무송유씨(茂松庾氏)시니 아버님은 상서(尙書 ; 지금의 장관) 복야(僕耶)를 역임(歷任)하신 경현(敬玄)이시다.

6. 문정공 류 경(文正公 柳 璥)

류경 (柳璥), 문정공(文正公), Ryu Gyeong, 생몰년: 1211-1289, 세: 9
자 천년(天年), 또는 장지(藏之).

공은 문간공 공권(文簡公 公權)의 손이요, 복야공 택(僕射公 澤)의 아
들로서 희종(熙宗) 7년(1211)생이다.

고종조(高宗朝)에 문과에 급제, 여러 벼슬을 거쳐 45년 (1258) 3월에
국자대사성(國子大司成)으로 재직 중, 김 준(金 俊) 등과 함께 당시의 세
도가(勢道家)인 최의(崔誼)를 죽이며, 정권을 왕실(王室)에 회복시키고 60
년 동안 끌어오던 최씨 세도를 꺾고 무단정치(武斷政治)를 종식시켰다.

왕이 공에게 이르기를 「경 등이 과인을 위하여 비상한 공을 세웠도
다.」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추밀원우부승선(樞密院右副承宣)을 제수하시
고 추성위사공신(推誠衛社功臣) 일등(一等)에 책록함과 동시에 많은 전토
(田土)를 하사하였다.

46년 (1259) 봄에 유주(儒州) 고을을 위사공신 류 경의 고향이라 하여
현(縣)으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문화(文化)로 개칭하고 현령(縣令)을 두었
다. 동년 4월에 고종께서 병이 위독하심에 공의 집으로 이어(移御)하여 6
월에 이곳에서 돌아가셨다.

원종(元宗) 3년(1262)에 도형벽상(圖形壁上)의 은전(恩典)을 내리고 이
듬해 수태부 참지정사 태자태보(守太傅 叅知政事 太子太保)로서 문하시
랑(門下侍郎)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승진되었다.

충렬왕(忠烈王) 2년(1276) 7월에 첨의시랑찬성사(僉議侍郎贊成事), 감수
국사(監修國史), 판판도사사(判版圖司事)에 승진되고 이어 세자부(世子傅)
를 겸하고, 또 감수국사로서 고종실록(高宗實錄)을 편수하였다.

4년 (1278) 2월 판전리사사(判典理司事)를 겸하고 10월에 사직표문(辭
職表文)을 올렸는데 왕이 허락치 않고 오히려 첨의중찬(僉議中贊)으로 승

진시킴에 다시 표문을 올려 사직을 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윽고 광정대부 첨의중찬 수문전태학사 감수국사 상장군 판전리사사 세자사(匡靖大夫 僉議中贊 修文殿太學士 監修國史 上將軍 判典理司事 世子師)로 치사(致仕)하였다.

15년(1289) 향년 79세로 돌아가시니 왕이 크게 슬퍼하시고 문정공(文正公)의 시호를 내리셨다.

공께서 본래 체구가 작고 비대하였는데 인품이 방정하여 바라볼수록 엄연하였으며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며 도량이 넓고 깊었다. 대사를 결단하고 사람을 대함에 관대할 뿐 아니라 지감(知鑑)이 있어 명신인 원부(元傅) · 허공(許珙) 등은 모두 공의 천거로 등용된 인물이다.

일찍이 사관(史館)을 거느리고 신종(神宗) · 희종(熙宗) · 강종(康宗) · 고종(高宗) 사조(四朝)의 실록을 편찬하고, 국자시 및 과시(科試)를 네 차례 관장하였는데 그 때마다 문장을 논함에 체재(體裁)를 먼저 취하고 공졸(工拙)을 뒤로 쳐서 훌륭한 선비들을 선발하였으니 이른바 이존비(李尊庇) · 안향(安珦) · 안진(安進) · 이혼(李混) 등의 명사가 모두 공의 문생(門生)이었다.

공의 사직표문 및 시 등이 동문선(東文選)에 실려 전한다.

공의 묘소는 장단군 진서면 전재리 종개천(長湍郡 津西面 田齋里 鍾開川) 선영 외국 자좌원(先塋 外局 子坐原)에 모셔 있다. 고종 3년(1866) 2월에 묘비를 개수하였는데 이조참판 달성 서승보(吏曹參判 達城 徐承輔)가 비문을 짓고 이조참판 연일 정해상(吏曹參判 延日 鄭海尙)이 비문을 썼다.

※ 고려사열전(高麗史列傳).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동문선(東文選)

上世篇

世	位次	諱	享祀日	住所 (現地名)	備考
1世	大丞公	車達	음 2.15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신촌동길 47-8 (동호동 587)	大東祠
"	"	"	음 3.15 음 10.24	충남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462 (학봉리 789)	東雞祠
"	"	"	음 9.15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양지말1길 71 (계류리)	慕省祠
2"	左尹公	孝金	음 9.15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양지말1계류리 산6(단)	五代壇
3"	大將軍	金奐			
4"	大將軍	盧一			
5"	少監公	寶春			
6"	少監公	寵			
7"	文簡公	公權	음 9.15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양지말1길 71 (계류리)	慕省祠
8"	尙書公	彦沉	음 9.15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양지말1길 71 (계류리)	慕省祠
			음 9.20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원세교로 275-36	德岩壇所
8"	僕射公	澤	음 9.15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양지말1길 71 (계류리)	慕省祠
9"	密直使公	淳	음 9.15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양지말1길 71 (계류리)	慕省祠
			음 9.20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원세교로 275-36	德岩壇所
9"	文正公	璈	음 9.15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양지말1길 71 (계류리)	慕省祠
10"	忠成公	成庇	음 9.20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원세교로 275-36	德岩壇所
10"	貞愼公	陞	음 9.5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841	壇所